



‘은빛 억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여행’을 주제로 ‘제10회 광주서창역새축제’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광주 서구 영산강변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시민들이 억새숲 사이를 걸으며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는 모습.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연휴 도심서 즐기자...문화·축제 즐길거리 한 가득



중장축제



양동동 맥주축제



역사박물관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까지 더해져 7일, 연차를 활용하면 10일의 황금휴가를 즐길 수 있는 추석 연휴를 맞아 광주 도심 곳곳에서 문화·체험 행사가 선보인다. 광주 도심 전체를 축제의 무대로 삼아 자연·예술·미식·다문화가 어우러진 콘텐트는 물론, 전통놀이와 전시, 공연이 펼쳐져 온 가족이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지난 8월 30일 개막한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개막 한 달을 넘어선 가운데 순항하고 있다.  
(제)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윤범모)가 12년 만에 다시 주관하고 있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서로 다른 ‘나’와 ‘너’를 이어주는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을 주제로 19개국 163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장예를 비롯해 연령, 성별,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포용디자인의 핵심 원리 덕분

인’(2025), 아이헤이트미디어+이노션의 ‘점자 양말’(2021), 3전시관 입구에 전시된 ㈜오노노머스에이투지(AUTONOMOUS A2Z)의 ‘로이, 코이’(ROii, COii, 2025), 4전시관의 팽민옥(영국왕립예술학교, RCA)의 ‘불규칙 시소’(2025) 등이 꼽힌다.  
전시 관람 및 ‘포용’ 및 ‘도시와 비엔날레’ 등 두가지 주제로 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추석연휴 기간(3·4일, 10·11일)에도 실시되는데,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이나 귀향객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행사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라는 주제로 11월 2일까지 65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박물관 등 문화공연 풍성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광주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선보인다.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는 11일 오후 5시 윤상원 열사 탄생 75주년을 기념하는 음악극 ‘상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무대에 오른다.  
남구 고씨읍놀이테마공원에서는 남구 칠석마을에 전승되는 세시풍속놀이로 국가무형유산 제33호로 지정된 광주칠석고씨읍놀이를 볼 수 있는 ‘한가위에 고씨읍놀이’ 행사가 3일 열린다.  
북구 비엔날레광장에서 4일 ‘2025 비엔날레 문화콘서트’가 열려 불빛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만날 수 있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3일부터 9일까지 ‘한가위 과학한마당’이 열린다. 과학 미술 쇼, 그림자 매직 쇼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제기차기, 투호놀이, 윷놀이 같은 전통 명절 체험도 가능하고,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과학 키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4일까지 ‘2025 아시아문화주간’이 열리며, 아시아아트마켓과 전통의상 패션쇼가 진행된다.

## 디자인비엔날레·박물관·찾아가는 문화공연 다채 중장축제·버스킹월드컵·서창역새축제 등 줄이어

에 가족 단위 관람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물론 장애인 단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시는 일상을 채우는 작은 생활용품부터 모빌리티와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개별적인 ‘나’와 동시에 ‘너’인 우리를 인식하는 디자인의 방식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삶, 모빌리티, 미래’ 네 개의 키워드로 보는 포용디자인이말로 인간 생활과 존재 방식에 스템 디자인이 누군가에게 생활 속 장벽이 될 수 있음을 일러주고 우리에게 다른 감각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전시장에서 꼭 눈여겨 봐야 할 작품으로는 제1전시관의 Tongji University) 출판작 ‘달린 문 너머로: 고립은둔청년들의 독백에서 대화까지’(2025)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의 ‘레버넌트’(Revenant, 2025)를 비롯해 2전시관의 코액터스(Coactus)의 ‘고요한 M: 마음을 잇는 따뜻한 이동’(2020), 푸르메재단의 ‘세상에 없던 일자리를 디자인하다’(2025), 러플(LUPL)의 ‘인클루시브 패션-모두를 위한 옷에 대한 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2025 추석 한가위 한미당’이 열린다. 마당극 ‘춘향전’, ‘별주부전’ 공연과 함께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장구·북 등 국악기 체험, 소라피리(미니 나카) 만들기 및 소원 키팅 제작 등 공예 체험이 진행된다.  
무등산 중심사 입구에 위치한 전통문화관에서는 4일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열려 고구려 벽화 속 7가지 전통 놀이와 한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다. 또 판소리와 산조 공연이 포함된 ‘토요상설공연’이 시민들의 흥을 더한다.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연휴 기간 광주 곳곳에서 시민들을 찾아가는다. 4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사마당에서 목관악기 연주, 남구 푸른길공원에서 색소폰·합창 공연, 광산구 운남근린공원에서 전통 율타기 등 전통 연회를 즐길 수 있다. 11일에는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난타 공연이,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국악 콘서트가 열린다.

△축제의 물결 속으로, 광주도심 전체가 무대  
10월의 광주는 지(G)-페스티벌 중심으로 축제의 중장 축제, 광주버스킹월드컵, 서창역새축제 등 대규모 축제들이 이어지며 ‘축제 도시 광주’의 매력을 선사한다.  
15일부터 19일까지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는 열리는 ‘광주 추억의 중장축제’는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퍼레이드, 주먹밥 콘테스트, 7080 테마거리 등이 운영되며, 충장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 열리는 ‘충장로온페스타’와 연계해 아간 프로그램인 미드나잇페스타, 텐트뷰는 충장, 아라뉴이터 등이 펼쳐진다.  
같은 기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 일대에서는 전 세계 14개국 거리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세계 공연대회 ‘2025 광주버스킹월드컵’이 열린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도시를 특별한 무대로 바꿔 놓을 예정이다.  
영산강변에서는 10월 16일부터 ‘광주서창역새축제’가 시작된다. 역사 경관 속에서 문화예술 공연과 체험행사, 경기대회, 명태끼 대회 등 이색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0월 18일에는 ‘빛고을 문예 백일장’이 함께 열려 문화적 감성을 더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광주 한적한 명소에서 여유롭게 감성 충전

광주시가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긴 추석 연휴 기간 가족, 지인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광주의 다양한 명소의 관광지를 추천한다.  
△북적임 대신 조용한 골목투어  
연휴 기간 시민과 북적이는 관광지 대신 광주 곳곳의 조용한 골목길에서 역사와 이야기를 만나는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가족, 지인과 한적하게 산책하며 광주만의 감성과 여유를 경험할 수 있는 힐링 코스다.  
충장로 ‘충장레트로골목’은 도깨비골목과 꽃피는 충장로 셋길 꽃길, 영화가 흐르는 골목 등 아날로그 감성과 추억을 간직한 골목이다. 7080세대에게는 추억의 향수를, MZ세대에게는 레트로 감성을 선사한다.  
‘도깨비골목’은 반지를 선물하면 도깨비가 고백을 이루어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금은세공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고,

‘꽃피는 충장로 셋길’은 12달의 탄생화를 담은 그림과 포토 스팟이 가득해 싱그러움 분위기를 자아낸다. ‘영화가 흐르는 골목’은 국내 유일의 단관 극장인 ‘광주극장’이 자리해 예술과 영화의 향기를 따라 영화도 보고 느긋한 산책도 가능하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한 ‘고려인마을 골목’은 고려인의 삶과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 숨 쉬는 아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색적인 문화와 이야기를 접하고 싶은 관광객에게 추천할 만한 장소이다. 고려인 이주 역사 해설, 전통의복 체험, 골목 투어 등을 사전 예약을 통해 즐길 수 있다.  
예술적 감성이 살아 있는 ‘양림동 팽민옥’과 ‘동리단길(동명동)’도 놓치기 아까운 명소다. 폐차자와 생활용품으로 꾸민 팽민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는 팽민마을, 감성적인 카페와 서점이 어우러진 동리단길은 느긋한 골목 여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 감성조망대 등 가을빛 만끽 산책길 도심골목...정상개방 무등산서 힐링

△가을빛 물든 산책길  
민족 대명절 추석, 광주는 도심과 가까운 산책 명소에서 가족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1일 개장한 ‘서창 감성조망대’는 은빛 억새와 푸른 하늘,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어우러져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조망대에서 바라보는 서창 노을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여유와 감동을 선사한다. ‘광주전’과 ‘영산강변길’은 가을을 대표하는 코스모스 꽃밭이 펼쳐져 가볍게 산책하며 가을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문흥동 문화소통길’과 ‘환벽담’(북구 충효동), ‘시민의 숲 백합나무길’, ‘우일선선교사 사택 일대’(남구 양림동)는 붉게 물든 꽃무릇으로 유명한 명소이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하얗고 청초한 구절초가 가을빛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광주의 대표적 산책로로 진정한 호수와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깊은



우일선선교사 사택 출처 비정광주 기자단 안구선

감동을 전한다.  
광주의 가을 하이라이트는 단연 ‘무등산 트레킹’이다. 무등길은 가을 정취와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특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9일에는 군부대 내 위치한 지왕봉과 인왕봉 정상에 개방돼 가을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도심 속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하늘마당’ 잔디밭은 따사로운 가을 햇살 속에서 피크닉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